

불자 세상보기



범음 스님
한반도평화통일
실천기획단 공동단장

안대희 前 대법관이 전관예우 논란으로 총리후보에서 낙마한 데 이어 지난 10일 지명된 문창극 후보자 또한 과거 발언과 칼럼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한 뉴스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이 개각이 예정된 상당수 신임 내정자들이 과거 경력 및 논문 가로채기,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부실을 넘어 파탄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내각 개편작업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른바 '적폐'를 청산하고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다. 하지만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사실상 박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모든 집단의 지도자는 공히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심이 확보되어야만 권위가 서고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정부를 비롯해서 공조직의 지도자라면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언행을 해야 하며, 행보를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십수년 동안 도합 6명의 총리 지명자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토지 불법증여, 이중국적, 아들의 병역 문제 등으로 인사 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위법성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자신은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식민사관과 숭미(崇美)주의, 근본주의적 종교관이 거론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주요 지도층 일각의 역사와 민족, 종교에 대한 굴절된 시각은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제국주의로 대변되는 '함'에의 숭배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물리적 강자(强者)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열등감을 감추고, 상대적 약자를 경멸하고 무시함으로써 반민족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종교나 의식주, 언어, 사회적 통념은 당연히 강대국의 주류사회를 쫓는다.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나머지 모두는 그저 '개조'해야 할 미개인일 따름이다.

총리 후보의 자질을 둘러싼 연이은 논란을 보면서 필자는 이들 문제투성이의 인사들이 하나 같이 최고의 학력(學歷)을 자랑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들이 각종 인맥으로 하여서 공공부분의 민영화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소위 관피아를 만들어 낸다면, 관피아에 전문지식과 정책이념, 기술적 방안을 제공하는 이른바 '학피아'를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언론, 기업체 연구소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 권력층의 일그러진 이면에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족적 불행 가운데 하나는 지식과 학력이 권력의 상층부로 진입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

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세상, 어디에도 기쁨 곳 없고, 누구나 다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학력'은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이자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자산이었다. 전후(戰後), 폭풍 성장한 교육률과 맹렬히 불타올랐던 교육열은 아시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일등 공신인면서, 동시에 한국사회를 사교적 열풍과 무한경쟁, 양극화의 극치,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비정함 속으로 몰아넣은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병폐적 사회구조를 통찰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물질주의와 세속화, 대형화로 치달으며 때만 되면 임시기도의 깃발을 내걸고 적폐의 한 축이 되어 온 종교계부터 사무치게 반성하는 조류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사만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는 책임총리의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조계종 선거법 개정

조계종 중앙총회 제198차 임시회가 오는 6월 25일 열린다. 이번 회기에 가장 이슈가 되는 법안 선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비구·비구니 스님을 동수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구 스님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재가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공동체 살리는 선거제도 개정 필요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승남 20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 스님 6000여명 전체가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입법예고되었다. 하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총무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총회 총책모임들이 표면적으로야 동의하고 있다지만, 비구 스님 상당수가 여전히 비구 스님들의 종단 참여에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비구승 위주의 종단운영 구조가 공고화되어 있는 체제에서 총무원장 선거에서만이라도 평등한 참여가 보장된다면, 다른 여타의 종단운영에도 큰 파급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종단운영 구조 하에서 평등권의 확보는 그만큼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100일 순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교계의 현실은 썩 밝지 않았다. 중앙종단의 규모가 커지고, 교구의 인사권이 정착되어 안

정된 것 같지만, 실제 일선사찰과 교구 본사-총무원의 관계는 행정적 결합이 상은 아니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정신적 일체감과 질서는 많이 퇴색해 각자 사찰 중심의 각자도생 움직임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고쳐져야 한다. 입법예고된 안대로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고, 비구 스님이 평등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긍정적이면 많다. 그러나 이왕 고칠 요량이면 100년 앞을 내다본다는 마음으로 더 탄실하게 고쳐야 한다. 출가대중의 공동체성과 책임성 강화, 재가대중의 종단 운영 참여,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역할 강화, 무너진 미래세대와 탈종교성 심화 등 안팎으로 고려해야 할 일들이 충분히 비영되어야 한다.

세상도 현행 직접선거-대외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이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의적 방식으로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다가올 세상의 흐름을 읽고, 현재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는 최선의 방안으로 선거제도도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계종단은 비구만의 종단인가?



옥복연
종교와 젠더
연구소장

현재 종단에 등록된 비구·비구니의 숫자만 해도 1만 2천여 명에 이르지만,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인단은 321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각 교구와 중앙총회 의원 등 특정 계층 출신의 소수이다 보니, 선거 때마다 계파간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나 금권선거 등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총무원의 입법 예고안대로 총무원장 선거가 시행된다면, 약 6천여 명의 출가자에 의해 총무원장이 선출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총무원 산하 쇄신위원회에서 약 60여 회에 걸쳐 회의를 거듭했고, 비구·비구니의 동등한 비율과 소수이지만 재가자가 참여하는 사부대중의 선거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총무원의 입법예고안은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재가자들의 실망이 컸다. 그나마 비구·비구니

의 동등한 선거권은 성평등한 종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위안을 했다. 그런데 이번 입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종단의 대표인 원로회의와 교구본사주지, 그리고 중앙총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등한 선거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감히 비구니가 비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에, 비구니에게는 비구와 같은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중정, 원로회의, 총무원장, 교무원장, 호계원장, 포교원장은 물론 교구본사주지도 비구만이 할 수 있도록 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조계종단의 현실이다. 출가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종단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최대 종단이라는 조계종단은 소위 '비구만의 종단'이라는 것이다. 만약 다가오는 198회 임시회에서 이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계종단은 비구니를 차별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종단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될 것이다.

社說

행복바라미, 보시바라미 문화 정착 기대

지난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이 6월 19·20일 양일간 광화문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캠페인이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공연과 축제 중심에서 희생자 추모와 국민 치유 프로그램으로 바뀌 진행됐고,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올해에는 특히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공상정, 조해리 선수를 비롯해 前 국가대표 수영감독 노민상 교수와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수영 금메달리스트 정다래씨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참여해 팬사인회를 통해 국민적 호응도 이끌어 냈다.

'행복바라미'는 가정의 달이자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을 '불교계 모금의 달'로 이끈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대사회공헌 모금

배분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열린 행사에서는 15일간 거리모금 캠페인을 통해 1억 200여 만원을 모아 어려운 이웃 209명에게 전달했다.

세상의 변화는 작은 몸짓과 발걸음부터 시작된다. 당장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어렵고 소외된 이들의 좋은 길벗이 되었다는 것이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취지다.

이런 나눔 정신을 잘 살려 행사때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행복바라미의 고귀한 정신이 우리사회 저변에 넓게 확산돼 우리모두가 행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업종생이 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길이다. 아울러 7월 5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108개소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거리모금 및 나눔문화 캠페인도 진행된다고 하니 많은 이들의 동참도 당부한다.

남북 만해 다례재처럼 통일 불사도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 남북 불교도가 함께 다례재를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조선불교도연맹이 6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다례재를 봉행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동 다례제는 지난 3월 중국 심양에서 있었던 남북불교교류 실무회담의 결과 성사될 수 있었다. 당시 민주본은 조불련에 만해 스님 열반 70주기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봉행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후 팩스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해왔다. 회담에서는 이외에도 서산대사비 보존보수사업, 묘향산 보현사 추계제향 등에 관한 내용이 오갔다.

조불련은 만해 스님의 항일정신을 높이 사며 행사 필요성에 동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학술토론회 형식이 아닌 공동추모 형식의 다례재를 제안했다. 주제, 범위 등 조율해야 할 세부 문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항일운동 지도자인 만해 스님의 추모 다례재를 남북 불교가 하나돼 봉행하는 것은 현재 정세에서 여러 의미가 있다. 밖으로는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전범 범죄가 아닌 한일 외교 문제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고노 담화 흔들기'가 이뤄지고 있고, 안으로는 극우 망언 총리 후보가 버티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민족 지도자 만해 스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풀어내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 같은 교류 사업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 합동 다례제는 불교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정신과 사상, 업적과 실천을 남과 북이 함께 조명해보는 의미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남북 불교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남북교류행사가 정례화 되었으면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페이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홈페이지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홈페이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공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공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공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공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공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공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공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개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공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